

향 주 덕

69.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느님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그대 존재의 본질입니다

사랑에는 날개가 달려있어 우리의 삶을 정상을 향해, 심연을 향해 던져 버립니다. 사랑은 일치하게 하고 하나로 모으며 모든 것을 묶어 하나로 만듭니다. 하느님, 당신의 사랑을 제게 주소서!

70. 사랑의 성소는 모든 성소를 초월하는 완전한 성소입니다. 사랑은 사랑 밖에 모르고 사랑 외에 그 어느 것 에도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의 성소는 단편적인 성소들을 거부하고 모든 성소들을 끌어안는 보편적인 성소가 자리잡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이 되길 원하고 전부가 아니면 만족할 줄 모르며 부분적인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71. 값싼 동정심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그대를 대하고 싶습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야성적인 사랑, 해방을 가져다 주는 사랑, 위대한 모험에 자신을 투신하게 하는 사랑으로 그대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만들어 가는 사랑, 그대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불씨를 일으키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72. 그대 앞에 펼쳐진 땅은 황량한 광야입니다. 신비롭고 고통스러운, 고독으로 흘러 넘치는 살아있는 사막입니다. 이는 성 바오로와 성녀 카타리나의 야성적인 사랑입니다. 또한 폭신한 침대와 안락한 환경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사냥감을 손에 넣기 위해" 사막을 향해 팽팽한 화살을 당기는 연인들의 사랑입니다.

73. 그분을 보는 것은 천국에서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자상에서 벌써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 안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74. 사랑은 일치되는 요소를 재빨리 찾아내고 분열시키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최대의 비결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일치하는 것이고 생명을 꽃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활한 광야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모두가 그대 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대 영혼 안에 빈자리를 내어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거친 사막을 부드럽게 해주는 따스함을 만나고 모두 한 형제가 됩니다.

75. 길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느님의 요구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그분이 마련해 주신 길을 연구하고 그분의 신비스

러운 계획을 정면으로 끌어 안으십시오. 그대는 사랑의 위대한 모험으로 초대 받았습니다. 그대의 사랑으로 어둠 속에 싸여 있는 세상을 밝히십시오.

76. 우리 신원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면서 왜 아직도 사랑의 신비를 향해 미칠 듯이 달려들지 않고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랑의 신비를 제대로 살았더라면 우리도 성녀 카타리나 못지 않게 충만하고 활력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문제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 주신 그 지극한 신비들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77.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살 수 있도록 자신은 죽는 것입니다.

78. 생명과 죽음, 건강과 질병... 모든 것이 사랑의 신비에 유익합니다. 온전히 내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79. 우리의 삶에 사랑보다 더 현실적인 것은 없습니다. 사랑만큼 오래되고, 사랑만큼 항상 새로운 것은 다시 없습니다.

80. 세상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 사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 우리 가난한 삶을 포위하며 다가오는 하느님 사랑의 요구들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해 주는지 결코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또 열렬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영혼은 즐겁고 충만하게 됩니다.

81. 생각하는 것 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간은 생각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82. 사랑의 갈망을 채울 방법이 없다고요?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갈망을 그대 안에 집어 넣으려 하지 말고 반대로 그대가 사랑 안에 들어가 헤엄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헤엄치십시오.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우리 인생은 의미를 잃어 버리게 됩니다.

83. 사랑은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하기 원한다면 많이 고통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사랑의 열매인 동시에 사랑 안에 우리를 단련시켜 견고하고 충만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고통을 위한 고통이라면 아무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위한 고통에는 생명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이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84. 많이 사랑하세요.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하느님처럼, 하느님 식으로 사랑하세요.

정열에 빠진 탐험가들처럼 열띤 경쟁에 참가한 사람들처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사랑하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최고봉을 향해 전진하는 등산가들처럼, 깎아지른 듯한 암벽을 타고 오르는 사람들처럼, 완전한 목표를 향해 온 생애를 투신하는 사람들처럼 용감하게 아낌없이 그리고 관대하게 사랑하십시오.

85.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맑고 가볍게 해주는 유일한 것은 사랑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전체를 차지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 사랑하기 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지게 맡겨두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는 내려 오고 올라가는 두 가지 흐름의 새로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신비입니다.

86. 사랑은 아주 멀리까지 도달합니다. 얼마나 멀리까지 가는지 세상 끝에서도 그 효력과 신비스러움이 느껴집니다.

87. “예수님, 주님은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게서 “퀘맨 조각”을 많이 발견하면 할수록 그만큼 제 사랑 또한 크고 진실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랑,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사랑. 온통 누더기투성인 사랑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신의 거렁뱅이임을 깨닫고 사랑의 포옹을 드릴 때 당신께 동냥을 청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주님!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88.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물을 마시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를 지나며 사막이 오아시스가 되게 하고 척박한 들판을 옥토로 바꾸어주는 그 사랑을 마시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만지는 것 모두가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구원하고 세상의 모습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89. 하느님의 눈길이 그대 위에 쏟아지고 있으니 그대의 응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대 삶 전부가 사랑의 응답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비관주의나 실망에 빠진 채 비겁해져서는 결코 안됩니다.

하느님께서 그대가 호흡하는 공기, 그대의 힘입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어려운 것도 없고 불가능이란 더더욱 있을 수 없습니다.

90. 두려움 없이 전진하십시오. 우리 발 아래 이제 땅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사랑의 심연만이 존재합니다. 사랑 앞에 땅은 물러났습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것입니다.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91. 한 없는 그 분 사랑 안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랑하
시도록 맡겨 드리고 싶습니다.

92. 오늘은 사랑의 날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날이 아닌 날이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매 순간 사랑의
신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93. 영혼이 오직 하느님 안에 자리잡게 되면 사랑 아닌 다른 그
어떤 은혜나 보화를 찾지도 원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 외에 뭔가 또 다른 것을 찾고 있다면 사
랑이 약해졌다는 표시입니다.

94.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늘 새롭게 유지합시다. 사랑
은 결코 낡아지는 일이 없습니다.

95. 통합된 삶, 통합된 영혼은 사랑의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야 합
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단순화 시키고 분명하게 해줍니다. 또한
절대적인 것에 사로잡힌 삶은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모든 것을 아
름답게 합니다.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위험은 자신을 통합시키지 못하는 데 있

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연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합시켜 영원한 것과 절대적인 것, 그리고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96. 이렇듯이 자신을 내어주신 하느님은 영혼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토록 피조물을 사랑하신 하느님의 요구에 지나침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97. 그대는 수도원에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니까요. 그러나 애덕의 불가마, 사랑의 밑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질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질병은 오히려 사랑을 자극합니다. 수도원에서 사명감을 느끼십시오. 이 사명에서 그대를 관면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98. 아!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애덕을 선물해 주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결심을 하게 된다면...!

99.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사랑을 발명해 내셨지요? 아, 사랑은 발명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본성에서 영원으로부터 엮어진 것이란다. 하느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하느님은 사랑이시란다.

100. 승리자의 옷은 하느님의 사랑에 물들어 있습니다.

101. 그대의 시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대강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대의 시계는 하느님의 시간과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하느님의 시간은 여유 있고 성숙하며 고요합니다. 그것은 참된 사랑의 시간입니다.

102.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대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싶습니다. 그대를 구원하고 성녀로 만들고 충만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에게 손을 내밀고 가까이 다가가길 원하시며 당신의 굳셈과 사랑을 그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원하십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대도 원하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분께서 함께 계시는 데 누가 감히 그대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103. 아버지, 신비로운 당신 사랑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골고타까지 올라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사랑을 배워 나갑니다. 거기에 진실한 사랑의 역사가 쓰여 있습니다.

104. 가난한 우리 마음은 사랑하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채워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비어 있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사랑은 철저합니다. 전부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 스스로 완전한 비움의 작업을 해 나갑니다. 모든 것들에서 이탈해 갑니다. 이는 영혼의 모든 영토를 독점적으로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105.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 -오직 이런 사랑만이 참된 사랑입니다- 은 모든 이가 물을 길 수 있는 우물과도 같습니다.

106. 사랑의 시각으로 볼 때 모든 것은 그 중요성을 잃어 버리게 됩니다. 주님, 제 사고방식 앞에 장님이 되게 해 주시고 당신의 시각으로 보며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107. 사랑이여, 그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종사합니까?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안에 간직된 불을 유지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사랑이며 이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108. 영원하신 하느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으로 사랑을 제어 볼 수 있습니까? 사랑의 잣대 말입니까? 사랑을 짚 수 있는

잣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지닌 일치의 능력을 미루어
보아 짐작할 따름입니다.

109. 사랑은 추상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따스하고 다
정한 그 무엇입니다. 모든 이가 체험할 수 있고 삶의 마지막 구석
까지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10. 사랑은 쓰고 나누지 않으면 빈곤해집니다. 그러나 쓰고, 주
고, 내어주는 사랑은 알차고 풍요로우며 새로운 생명과 사랑을 탄
생시킵니다.

111. 언제, 어떻게를 계획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랑하십시오. 특정한 일을 찾거나 바라지 말고 그냥 사랑
하십시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정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사
랑하십시오. 사물이나 장소에 대한 애착 없이 사랑하십시오.

112. 우리 영혼 안에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 손안에 들려
있습니다. 사제들과 함께 사제가 되고,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사가
되며, 아프리카 사람들과 더불어 아프리카 사람이 되고, 죄인들과
함께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계급과 칭호, 면모와 권리를 갖추게 해줍
니다.

113. 인간의 가능성이 미치지 못하는 곳, 인간의 지성이 장벽을 만나고 그의 활동이 한계를 느끼는 바로 거기서 끝없는 사랑의 위대한 활동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114. 저의 사명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하느님께서 미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과 똑 같은 사명을 제게 주셨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함부로 사랑을 다루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친 사람은 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15 사랑하는 마음은 삶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투신합니다.

116. 피조물을 향해 다가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의 사랑이 티끌 같은 이 존재를 어떻게 해주실 수 있다면...!

117. 그대는 하느님께 빛을 졌습니다. 물론 사랑의 빛이지요. 그분께서 영원하신 사랑으로 바라 보시자 그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하느님의 눈길입니다.

그대는 사랑과 생명의 축제에 초대 받은 허무의 그림자, 수세기 동안 허무 속에 잠들어 있던 허무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손이 그 허무를 흔들어 잠 깨웠습니다. 무한하고 사랑스러운 그분

온기로 그 허무를 만져주셨기에 그분의 전능에 감싸여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대는 하느님께서 영원하신 사랑으로 세상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그대는 '존재하시는' 분께서 영원으로부터 생각해두신 '없는' 자입니다.

118. 하느님을 거들어 드리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분의 휴식처가 되어 드리는 일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굳세어지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을 시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119. 순교에까지 이르는 사랑,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 목숨이 다 할 때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대 삶의 프로그램입니다.

120. 온갖 종류의 용맹 무쌍한 모험에의 투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것은 사랑입니다.

121.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는 첫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사랑과 열정에서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122.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진 시간들은 영웅적인 시간들입니다.

123. 사랑은 행진에 박차를 가하고 단 1초 만에 지구를 수천바퀴 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시계가 돌아가게 하는 유일한 태엽입니다.

124.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사랑의 유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이 유산을 실제로 물려받기 위해서 생명이라는 상속세를 바쳐야 합니다.

125. 사랑은 기적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126. 베들레헴, 나자렛, 겐세마니, 다락방, 골고타 모두가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비밀을 전부 이야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신비 속에 숨어 있는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127. 사랑하는 것, 인간이 꿈꿀 수 있는 모든 야망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영혼들, 그리고 세상 전체가 사랑이라는 한 마디의 말 안에서 만납니다

128. 영혼을 다해, 열렬히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모든 이가 우리의 것이고, 나는 모든 이의 것이며 모든 이를 위해 있습니다. 지리적인 것을 초월하여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것, 오직 이 것 만이 모든 이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29. 사랑은 무엇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제 그대는 신비로 가득 찬 연인들의 모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모험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중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지만 사랑으로 대한다면 모든 것이 쉬워질 것입니다.

130. 무익한 존재가 되는 것! 이처럼 복되고 신비스러우며 유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대는 오직 사랑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낯선 소리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 밖에 그대가 해야 할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죽어가는 그대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31. 사랑은 하느님의 마음을 즐겁게 드리는 매일의 협주곡입니다.

132. 사랑은 언제나 하나로 일치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치가 없는 곳에는 사랑도 없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133. 사랑하고, 사랑 하고 오직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결실을 맺으려 초조해하지 말고 그저 기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사랑의 단계에 대해 알려 하지 맙시다.

134. 하느님께 사랑을 달라고, 그대를 사랑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청하십시오. 그대 삶 전체가 하느님의 복사본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꿈꾸고 계신 것은 사랑의 불꽃으로 변화된 그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하느님과 같은 꿈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싶군요.

135. 사랑의 길은 교회를 위해, 교황님을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생명이 되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싸우는 이들을 위해 사랑의 사명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136. 사랑은 조잡한 것들을 모두 파괴시켜 버립니다. 사랑은 모두 태워버립니다. 우정 어린 사랑은 조잡스럽고 부정적인 요소를 모두 태워버립니다.

137. 사랑을 향해, 철저한 애덕을 향해 정열적으로 투신하십시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대로 하여금 그대와 하느님 사이의 깊은 우정의 일치로 깨트리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분은 정열을 다해 온 생애를 바쳐 사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다른 데에 정열을 쏟는 것은 사랑을 도둑질 하는 것입니다

138. 사랑은 그대의 비결이며, 그대의 힘, 그대의 전 생애를 바쳐 강행해야 할 모험입니다. 연인들의 용기로 사랑을 실천해 간다면 충만한 삶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139. 항상 같은 언어로 하느님께 응답하십시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대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대가 사랑의 언어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줄 모르게 되기 바랍니다.

140. 사물을 초월할 때 인격의 성숙을 가져 옵니다. 인격의 성숙이란 자신을 망각한 채 사는 것이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생명보다, 죽음보다 더 강하며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내지 못하는 일을 사랑은 해낼 수 있습니다.

141. 사랑은 가난을 풍요하게 만듭니다.

142. 사랑의 기쁨... 그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살고 사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야말로 그대 인생의 사막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삶으로 옮긴다면 너무도 훌륭한 프로젝트이지요.

그것은 서로간의 알력과 긴장이 존재하지 않는 편안하고 원활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안으로부터, 기도로부터, 그리스도와의 은밀한 접촉으로부터, 영혼의 커다란 갈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안에서 우러나올 때 비로서 외부와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고 타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 수 있게 됩니다.

143. 자신을 걸어 약속한다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애덕을 위해 투신하는 것입니다.

144. 영혼이 애덕 안에 산다면 삶을 다스리는 주인이 됩니다. 애덕은 시간과, 공간, 영혼들을 초월하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애덕은 하느님에게서 나오고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덕은 영혼을 젊게 하고 주름살 없는 왕성한 정신을 되찾게 하며 언제나 낙천주의자로 살게 합니다.

애덕은 하느님 잔치에 입고 갈 혼인 예복으로 영혼을 단장시킵니다. 동시에 이 예복은 매일의 일상복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들의 옷, 이 유배지에서 시작하여 영원까지 입고 갈 옷입니다.

145. 주님께 수없이 말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한다고, 미치도록 사랑한다고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 드리십시오. 그렇게 느껴지지도, 믿기지도, 보이지 않더라도 지치지 말고 되풀이해 말씀 드리십시오.

한번, 또 수천 번 말씀 드리십시오. 느끼지 못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여 말하노라면 언젠가는 구태여 말하지 않더라도 느껴질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146. 사랑의 언어는 매우 강한 표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은 스스로 노래하고 그 자체가 노래입니다. 시를 지어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안에 풍성한 시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147.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랑은 그 요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구가 따르지 않는 사랑이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랑일까요?

148. 그대 사랑의 응답이 하느님의 귀에 깨끗하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시험에 완전하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지금 배우고 있는 교과목, 저 신비스런 시험에 앞서 거쳐야 할 일상의 교과목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149.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작은 사랑을 모두 요구합니다.

150. 하나님 사랑에 몸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업에서 망하게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익을 보기 위해 투자하며 또 언제나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151. 사랑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험한 산을 시원한 웅달샘이 되게 하고, 생활 속에 미소를 머금게 하며, 약한 이를 강하게 하고, 만지는 것마다 기쁨의 노래로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이런 일들을 합니다.!

152. 그대는 왕직을 이어 받은 백성, 사제직을 이어 받은 백성입니다. 그대의 직무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대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을 축성하고 하나님께 바쳐드리십시오.

153. 우리 함께 사랑의 발전소를 만들어 봅시다. 그대를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결코 잠시도 한눈 팔 수 없습니다. 그대에게 전압조절기를 맡깁니다. 수도원의 전압을 올리십시오. 언제나 항상 올라가게 하십시오. 인류 전체의 전압을 올리는 일은 수도원이 맡아 할 것입니다.

154. 주님께서는 몇 가지 기본 원칙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우리 판단의 순수함입니다.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판단 받을 것이다.”

그대는 하느님께서 흘러 넘치는 자비와 넓은 아량으로 그대를 판단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만일 하느님께서 사랑이 아니라 정의로 판단하신다면 불쌍한 우리는 어찌 되겠습니까?

155. 맛보지 않으며 사랑하고, 사랑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채 사랑 하십시오.

156. 모든 이가 활활 타오르는 생명의 등불이 되도록 영혼들을 도와 주십시오. 그 누구와도 마찰이 있거나 어두운 그늘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직 사랑만이 있어야 합니다.

157. 사랑하는 수도원, 사랑에 정진하는 수도원, 사랑에 온전히 자신을 바치는 수도원을 꿈꾸어 봅니다.

우리 수도원이 세상의 사랑을 끌어올리는 승강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원에서 세상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막대한 양의 사랑을 내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58.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공간을 이 세상 한 구석에 만들어 내는 것, 이 얼마나 매력적인 일입니까? 그 공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 거대한 국제 기업을 세우기 위한 자본금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159. 살아가며 겪게 되는 모든 일이 하느님 사랑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잘 이용하십시오.

160.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라면 알래스카의 얼음장 같은 추위도 상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좁은 길도 탄탄대로로 여겨집니다. 모든 것을 그분 때문에 해야 합니다. 만일 인간적인 차원에서 행동한다면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161. “아버지, 세상이 믿게 되도록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과연 세상이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혹시 사랑의 혈관이 막혀 버린 것은 아닙니까? 사랑으로 무엇을 했나요?

162. 공동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덕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일이나 작은 일에서나 언제나 애덕입니다. 이는 아주 작은 섬세한 부분에까지 이르고 드러나지 않는 곳까지 마

음을 쓰는 사랑입니다.

이해하고 미소 짓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고쳐주는 사랑, 그러나 언제나 사랑인 것입니다.

163. 애덕은 자녀들을 구별하는 표시이자 선택 받은 이들의 유니폼입니다. 애덕으로 하느님 나라의 신하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애덕만이 생명의 문을 열어 줄 것입니다.

164.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대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세상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사랑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인도자입니다.

165. 우리 삶이 삼위일체 가족의 메아리가 되게 합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미소를 지으시도록 위대한 우정과 사랑을 이루어 갑시다.

이를 위해 진실의 횃불을 밝혀 들고 애덕의 친교를 살아갑시다.

166.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있습니까? 자매들을 향하는 그대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요? 도와주고 감싸주고 구원하는 심오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혹시 형제들을

고발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누가 하느님 심판의 잣대를 그대에게 맡겼단 말입니까? 거의 항상 그대 스스로 자처한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예레미야 같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형제들의 결점을 받아주고 그들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하느님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대의 삶에서 애덕을 잃어 버린다면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167. 당신이 밟고 지나가는 곳마다 애덕의 불이 밝혀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대의 지성과 마음 안에서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애덕으로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168.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 우리 각자를 위해 또 우리 모두를 위해 번제물이 되신 하느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과 고통을 통해 구원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미치지 않고 있다니 될 말입니까!

169. 우리가 형제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자세는 그들의 사랑을 확신 하는 것입니다.

170. 꾸준히 타오르는 촛불 하나가 온 세상을 불지르기에 충분합니다. 만일 그 촛불이 사랑의 불꽃이라면 지구가 천 개라도 불지

르고 남을 것입니다.

171. 그대 곁에서 현대 기계문명의 소음이, 세상 사물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무 쓸모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갈증을 채워줄 수도 없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그대는 오직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기도가 그대의 연료가 되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 앞에 민감해지십시오. 그대의 삶을 사랑의 신비로 만들어 가고 관상으로 변화되게 하십시오.

172. 누가 시나이산의 불을 나에게 준다면 나의 형제들이 내 이마에 새겨진 하느님을 볼 수 있으련만!

173. 인생의 황혼에 치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질문은 오직 하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했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황혼 무렵에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삶 전체가 이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 때에는 모든 것이 따스한 온기를 띠고 태양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대기는 그 불 수레로 단장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물어 볼 것입니다. 사랑했요? 그대의 응답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그대는 하느님의 화산 속으로 영원토록 사라져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

다. 그대가 용감하다면 그대의 응답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전하라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74. 하느님께서 실제적이고도 위격적인 당신의 사랑으로 피조물을 섬기셨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 가련하고도 허무한 존재가 삼위일체 하느님으로부터 이토록 사랑 받고 보호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성삼위께서 영혼 안에 자리잡으시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루어내지 못할 위대한 업적을 그분의 손으로 직접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175. 성부께서 사랑의 신비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성령이십니다. 이 창조되지 않는 사랑이 영혼 안에 들어 오면 창조된 사랑을 만들어 냅니다.

176. 믿음, 희망,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무것도, 그 누구도 그대의 기초를 흔들어 놓지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 기초를 놓았기에 그 삶은 바위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 보고 나갈 영원이라는 초점이 없다면 우리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177. 우리 인생의 책에도 색인이 있습니다. 페이지 수를 매기는 것은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선물하는 주제는 : 사랑, 겸손, 살아 있는 믿음과 열렬한 희망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생의 책을 즐겨 읽어주시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주제들로 그것을 채워야 합니다.

178. 불 속으로 뛰어 드십시오. 그대가 사그라져 없어질 때까지 타오르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대를 내어 주십시오. 오직 사랑만이 정화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하느님께 합당한 자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사랑은 믿음과 희망 안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향주덕을 정복하기 위해 투신하십시오. 하느님의 영역 안에 살고 향주덕으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179. 사랑의 신비가 제 영혼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침착하게 평화 중에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꼭 오시리라는 것을 알기에 기다림이 길어질지라도 그를 즐겨 참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벌써 가까이 와 계십니다.

180. 희망을 가지십시오. 동정녀께서 그대를 사랑하시기에 그대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성심으로, 어머니의 만도로, 생명으로 감싸주실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 이 얼마나 아름다운 덕입니까? 이는 모든 열정을 식혀주는 향주덕입니다.

함께 희망을 간직합시다. 하느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업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81. 높은 곳을 향해, 하느님의 심오한 신비를 향해 힘차게 달려갑시다. 살아있는 굳센 희망으로, 하느님의 심연 속에 영혼을 살게 하는 활력있는 향주덕의 삶을 살아갑시다.

믿고, 바라고 사랑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182. 믿음 안에 깨어 있으십시오. 희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애덕 안에 쉬십시오. 신학적 차원으로 사는 영혼이 되십시오. 하느님으로 살아가십시오.

183. 저는 무능하고 약하고 누더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과 갈망으로 가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어둠 속에서 부르시는 사랑과 평화에로의 초대입니다.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누더기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온유하게 받아들이며 심연 위를 걸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훼의 좋은 충만한 나이를 향해 서서히 날아 오릅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의 골고타를 거쳐야만 될 것입니다.

184. 영원토록 그대를 위해 마련된 것을 이 지상에서부터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희망을 간직하십시오.

185. 결코 지칠 줄 모르는 갈망과 사랑으로 고요하게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는 사랑의 타오르는 희망으로 차갑고 어둔 밤을 통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186. 바라고 또 바라십시오. 그대의 바람이 실망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무한하게 충만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그대를 실망시킬 수 없으시니 만일 그렇다면 이미 그분이 아니실 것입니다.

 평화와 온유,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의 정상이 그대를 기다립니다. 이것들은 그대의 것이고 그대를 위한 것입니다.

 저 높은 암벽 바위 틈에 살라고 하느님께서 영혼을 초대하시고 그리로부터 영혼을 부르십니다.

 영혼은 목말라하며 갑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기에, 삼킬 듯이 타오르는 목마름 때문에 찾아 갑니다. 주 예수님, 제가 갑니다. 내 당신을 찾아 갑니다. 당신의 눈길 안에 영원토록 사라지기 위해 당신께로 갑니다.

187. 주님께서 그대의 희망이고 그대는 주님의 희망입니다. 그대는 그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그분은 그대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기다림과 기다림이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188. 고독과 희망의 신비 속에서 그대의 영혼은 굳세어져 갑니다. 하느님의 무한하신 바다를 향해하기 위해 생명을 거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189. 향주덕으로 살아 갈 때 그 대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는 향주덕의 차원의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이신 성자의 생명을 내 안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래를 펴고 두려움 없이 날으십시오. 하느님을 기다리십시오.

190. 믿음은 애덕으로 가는 길로 열어줍니다. 이는 성자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91. 얼핏 보기에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생활이야말로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192. 믿음의 직관으로 행동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절약되는

지요! 반면에 끝없이 이어지는 추리는 얼마나 많은 지연을 초래하는지요!

믿음의 하느님께서서는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사랑에 빠진 눈길은 지체하는 것을 모릅니다.

193. 그대는 황량한 산으로 초대 받았습시다. 그 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죽으십시오. 믿음의 어둔 밤으로부터, 황량한 산 꼭대기로부터 순결한 사랑으로 하느님께 경배 드리십시오.

194. 밖으로 향하는 저의 눈을 감겨주시고 안으로 향해 열리게 해주십시오. 심오한 사랑의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95. 하느님은 무한한 신비이시며 짙은 어둠 속에 살고 계십니다. 그대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거기에도 무한한 신비가 존재합니다. 그곳은 그대 안에 하느님을 모셔 들이기 위해 마련된 허무의 빈자리들입니다.

감각도 지성도 이 신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향주덕만이 하느님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 멀리 바라봅니다.

인간은 자신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믿음, 희망, 사랑의 세계를 경배하기 위해 인간은 자신의 하부 세계 전체를 장악해야 합니다.

196. 믿음 안에 흡수 하십시오. 향주덕은 강한 영혼들을 만들어

냅니다. 믿음의 영혼이 되십시오.

197. 믿음, 믿음은 철흑같이 어둔 밤입니다. 또한 빛을 밝히는 신비로운 등대입니다. 하느님의 빛이 그대를 감싸도록 맡기십시오. 그 빛 안에 잠겨 들어 그 안에 사라지십시오.

198. 하느님의 빛이 신비 안에 그대를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은 심연 사이를 지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믿음 속에서 당신을 내어 주십니다. 믿음이야말로 합일을 위한 최고의 수단입니다.

199. 신덕은 애덕으로 조명되고 뜨거워져 인생의 사막에서 빛을 발합니다. 강하고도 힘있게 빛을 발합니다.

200. 이 지상의 귀양살이 중에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신비에 찬 흠숭! 오직 이 길만이 크나큰 사랑의 신비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추어진 그 사랑을 믿고 또 믿는 것입니다.

201. 끊임없이 찾으십시오. 찾으면 찾을수록 모든 것이 더 신비스럽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믿음의 빛나는 어둠 속에

살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거기 숨어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주 가까이 너무도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거기서는 모든 신비가 환히 밝혀질 것입니다. 하느님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 과연 어떤 것일까요?

202. 믿음, 소망, 사랑의 신비 속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갑니다.

203. 자신의 넘어짐을 망각한 채 뒤를 돌아 보지 않고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모험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분께 대한 확신입니다.

204.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네가 믿는 대로 되어라.” “내가 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시기 위해 언제나 믿음을 조건으로 내세우십니다. 믿음은 하느님의 능력으로부터 기적을 이끌어 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은 하느님의 손을 묶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대를 찾고, 추적하고 포위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대의 삶이 사랑의 기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205.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면 재빨리 믿음의 햇불과 사랑의 불꽃을 밝히십시오.

신학적인 삶으로 언제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오 복된 향주덕이여!

206.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예기치 않게 만나게 되는 모든 사건들 안에서 하느님의 발자취를 발견하십시오.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일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거나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조금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눈을 뜨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느님께서서 여기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7. 믿음의 빛이 영혼을 비추어가는 만큼 지상의 아름다움은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까? 상관 없습니다. 관상은 그대로 하여금 이 세상 것에 눈멀게 하고 참 생명으로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208. 우리 삶의 위대한 약속은 믿음입니다.

209. 용감 하십시오. 모험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입니다. 하느님께서서 그분께서 사랑하는 이들의 삶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신비들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대는 향주덕 안에서 그대의 순례 여정에 필요한 힘을 끌어내야 합니다.

사랑의 불꽃으로 휩싸인 그대의 모습을 하루 속히 보고 싶습니다.
희망의 날개를 달고 믿음의 힘으로 무장한 그대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높이 드높이 날아 오르십시오.